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교육학석사(무용교육)학위논문

한국 현대무용의 활성화 방안 탐색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서 정 화

한국 현대무용의 활성화 방안 탐색

Exploring ways to revitalize Korean contemporary dance.

202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서 정 화

한국 현대무용의 활성화 방안 탐색

지도교수 임 지 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무용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서 정 화

서정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숙 영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안 용 덕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지 형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4.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배경	8
1. 한국 현대무용의 이해	8
가. 1960년~1970년 후반	8
나. 1980년~1990년 후반	11
다. 2000년~2020년	12
2. 연구 경향	13
III. 연구 방법	14
1. 연구 설계	14
2. 연구 참여자	15

3. 연구 절차	16
4. 자료수집	17
가. 심층면담	18
5. 자료 분석	19
6. 연구의 진실성	20
IV. 연구 결과	21
1.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22
가. 2000년대 이전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22
나. 2000년대 이후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24
다. 앞으로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26
2. 현대무용의 문제점	28
가. 2000년대 이전의 현대무용의 문제점	28
나. 2000년대 이후의 현대무용의 문제점	28
3. 한국 현대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	32
가. 현대무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32
나. 현대무용공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	34
V. 논의	36
VI. 결론 및 제언	42
1. 결론	42

2. 제언	44
참고문헌	45
부록 <질문지>	48

표 목차

<표 1> 연구 참가자	15
<표 2> 연구 절차	16
<표 3> 자료수집절차	18
<표 4> 연구 결과	3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설계	14
<그림 2> 연구 결과	37

Abstract

Exploring ways to revitalize Korean contemporary dance.

Seo Jung Hwa

Advisor : Prof. Im Zi Hyung

Major in Da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by deriving perceptions and problems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dance education experts who have long served in university dance departments in Gwangju, Jeonbuk, and Chungnam.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 literature survey on the flow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using domestic and foreign books and papers,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three dance experts with 45 years of dance experience,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survey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ranscription, encoding, categorization, and topicization processes.

A. Recognition of modern danc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o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dance in Gwangju, Jeonbuk, and Chungnam, it can be seen that the

perception of contemporary dance has improved significantly since the 1960s, and that it was the active activity of contemporary dance groups based on the university's dance department. The dance department of local universities was the birthplace of modern dance culture in each region, and dance groups composed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actively strengthened their presence across the country and in each region, and through dance festivals such as national dance festivals, local dance groups were able to grow further. This is in line with literature studies that the reason why modern dance was able to develop rapidly is the opening of dance departments at each university. Contemporary dance in Korea conducted modern dance education starting with the Department of Dance at Ewha Womans University, which was newly established in 1963 as the first in Korea. The opening of Ewha Womans University's dance department produced many talented people who combined theory and practical skills, and faced a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American 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Yuk Wan-soon's Masagra-ham technique and numerous modern dance companies in the 1970s, modern dance in Korea has steadily developed with the breakaway from the Masagra-ham style and Korean indigenization work. After the 1970s, potential dance was introduced, and at the same time, there was a movement to change all of the existing styles, and experimental choreography was characterized. In the 1980s, various styl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performance law and the choreography focused on the movement itself by young choreographers and expressions using various media were combined to show a tendency to express overall expression. Afterwards, through the works of foreign contemporary dance companies through the 88 Seoul Olym

pics and the 88 Asian Games, Korean choreographers began to attempt experiments with strong Korean colors and spread international dance exchanges. In the 2000s, international exchanges became very active based on the founding of the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and Korean contemporary dance reached a level that was comparable to that of the world.

B. Problems with Korean contemporary dance.

At this point, experts presented their opinions on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current Korean contemporary dance. Modern dance in the past suffered a lot of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environment, such as difficulties in fostering professional dancers, giving up the career of dancers due to marriage, etc. However, since the 2000s, these problems have been easing. However, the current Korean contemporary dance has problems such as misrecognition of works, economic burden, and entrance exam-oriented work activities. In other words, the nature of modern dance is threatened by uniform work activities that began from the time of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current uniform curriculum does not help to advance into various specialized fields related to dance after graduation.

C. The direction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Accordingly, experts suggested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modern dance education in Korea and the direction of modern dance performances in the future. Modern dance edu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specialized and specialized. In other words, by developing a curriculum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niversity, students should already be abl

e to select specialized fields from the time of entrance examination, and creative professionals in more subdivided fields should be trained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If expert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dance are trained through this, the quality of dance performances will also be improved through their collaboration. In addition, in the future, various performance cultures that can enjoy modern dance closer to life should be developed, and various values such as the therapeutic value of dance should be further explored and developed.

Experts' perception of the problems of Korean contemporary dance reminds students of the need to face the essence of modern dance by breaking away from entrance exam-oriented dance, and opinions on the specialization of the curriculum suggest directions on how policymakers can solve this problem at this time. In other words, if local dance departments coexist and enhance academic depth through specialization, it will be helpful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with local university dance departm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무용은 고정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고, 그 자체가 정신이고 철학이며 개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예술적인 형태와 구성이라는 체계를 갖추어 서서히 발전되어 왔다(박현아, 2001). 즉 현대무용은 시대의 감각을 반영하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 행하는 것으로서 과거와 같이 음악이나 미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인간의 신체만으로 충분히 내적 감정을 전달 할 수 있는 춤이다(박현아, 2001).

한국현대무용사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무용은 미국의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식 방법론이 소개된 60년대를 본격적인 뿌리로 하여 6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형성된 현대무용은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차이 속에서의 서구의 현대무용과는 또 다른 한국적 현대무용의 창출을 이끌었다(양정수, 1999).

70년대 이르러서는 더욱 다양한 현대무용 테크닉이 미국과 유럽 등지로부터 들어오면서 현대무용은 더욱 다양화되었고 한국의 각 대학 무용과에 전파되면서 더욱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양정수, 1998). 이로 인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현대무용은 현재까지 여러 형태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 대학을 중심으로 한 무용 문화의 발전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 무대 속에서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위치까지 왔다(이가현, 1997).

이러한 성장을 이룩하기까지는 수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도와 안무가들의 노력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양정수(1999)는 197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개설된 대학 무용(학)과 현대무용단 창단 붐은 현대무용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국내외적으로 한국 현대무용의 위상을 높여 한국 현대무용 중흥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명진(2001)은 무용(학)과의 확산으로 대학이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대학의 동문 무용단이 현대무용 확산

과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하였다. 한국 현대무용의 발전에 있어 대학의 무용(학)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학자들은 21세기에 들어와 순수무용이 쇠퇴하고 무용 향유 인구가 줄어 든 반면 대중적인 춤의 폭발적 인기로 대학들이 앞 다투어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실용무용과를 신설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황희정, 안병욱, 2020). 2010년대에 들어 와 무용학과의 폐지 및 축소로 2007년 43개 대학에 존재하던 무용(학)과가 2020년에는 33개 대학으로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이종희, 2020), 이는 최근 십여 년 사이 대학교의 무용 교육에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 시점에서 한국 현대무용 문화의 산실인 대학 무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교육적 측면과 공연의 측면에서 한국의 현대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묻고,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응답을 분석하여 한국 현대무용이 나아갈 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현대무용에 대한 연구는 한국 무용사라는 큰 틀 안에서 무용 작품의 시대적 특징에 대한 연구 및 대학 동문 무용단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연구(백맹, 2014; 라승희, 2011) 등이 이루어져 왔다. 현대무용에만 한정하여 무용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지방대학교의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고찰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무용은 다른 예술과 달리 일회성이라는 특징을 안고 있기에 사적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김미숙, 1996), 이러한 사적인 연구는 충실한 분석을 통하여 학문적 사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1960년대부터 한국 현대무용의 흐름을 고찰하여 이러한 역사 속에서 현재 한국 현대무용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대학교 무용과에서 이러한 한국 현대무용의 역사를 함께 겪어 온 전문가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 및 질적연구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한국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무용의 교육적 측면과 공연의 측면에서 모두를 포괄하도록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양정수, 1999; 최명진, 2001)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 대학의 무용(학)과 및 각 대학 동문들이 주축이 된 현대무용단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한국의 현대 무용에서 교육과 공연은 함께 상승효과를 누리며 함께 발전해 왔다. 따라서 현재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교육적 측면과 공연의 측면 모두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현대무용에 관심을 가진 대중들이 풍부한 현대무용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전과 이후 한국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2000년대 이전과 이후 한국의 현대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앞으로 한국의 현대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가. 현대무용

현대무용은 전통과 형식미를 추구하는 발레가 유럽 극장가에서 쇠퇴하여갈 무렵 발레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일기 시작한 무용형태로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 제한된 스텝과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움직임에 내재하는 일체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자연스러운 신체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졌다(이가현, 1997).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과 유럽의 일부 무용가들은 전통적인 발레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무용의 예술적 독자성에 입각하여 인간 내면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춤의 형식을 창조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리하여 새로운 스타일과 테크닉을 갖추게 된 무용이 탄생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무용이다(왕예개, 2014).

현대무용의 선구자는 미국의 이사도라던컨으로부터 기인하는데, 던컨은 인간의 감정을 보다 자연스러운 신체 움직임과 개인적인 표현을 통해 새롭게 나타내고자 하였다(이가현, 1997). 던컨의 무용은 그 시대의 무용과 사회인습에 대한 반항심으로부터 싹튼 것이며, “20세기 이전 고전 발레의 낭만주의 현상을 완료하기 위한 의미”에서 나타난 것이었다(노주원, 1985). 또한 그녀는 “무용의 역사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무용에 대한 관객의 개념까지 변화시켰다”(육완순, 1986)

나. 한국 현대무용

1) 서구 무용의 유입

한국에 있어서 외국무용의 도입과 신무용의 출발은 일본인 이시이바꾸의 공연을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 관례이다(김태원, 1992). 이시이바꾸는 1926년 3월 21일 경성일보 주최로 한국의 경성공화당에서 공연을 하면서, 한국인의 토양에 근대무용의 뿌리를 심게 한 사람이다(이가현, 1997). 이시이바꾸의 첫 공연은 서구의 신흥무용을 한국에 보여준 계기가 되었는데, 서양의 음악에 의한 안무와 자유로운 움직임, 그리고 무대공간을 활용하는 구성법 등은 우리 춤과 대조적이었으며 한국인의 무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김윤희, 1991).

2) 해방 후 한국 현대무용계의 동향

1945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춤의 장르 개념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몇몇 무용인들의 활동으로 무용계가 이어졌고, 1962년 박외선이 미국의 마사 그레이엄식 현대무용을 국내에 소개한 후부터 1963년 이화여대 무용과를 중심으로 육완순이 마사그레이엄의 긴장과 이완식 현대무용 방법론을 전파시켜 같은 해 육완순이 조직한 오케시스의 공연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현대무용은 체계적인 방법론을 갖게 되고 활성화 되었다(양정수, 1998). 이처럼 전 세계 현대무용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던 마사그레이엄 현대무용은 60년 이후 한국에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현대무용의 성장에 뚜렷한 획을 그었다(이가현, 1997).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지역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광주, 전북, 충남 지역에서 대학교 무용교육의 현장에 재직한 전문가만을 인터뷰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편화에 한계와 타 지역의 특수성 반영 등의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의 현대 무용사를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표본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전문가 각 1명을 인터뷰하여,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의 현대 무용사를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주관적 견해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를 연구자가 수행함에 있어 연구자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 현대무용의 이해

가. 1960년~1970년 후반

국내 대학 무용교육의 효시는 1963년에 국내 최초로 신설된 이화여대 무용 과이며 이 때 무용과 신설에 크게 기여한 박외선은 대학 차원의 현대무용교육을 처음 실시하였고 이처럼 이화여대 무용과의 개설은 “우리나라 무용계에 결핍되어 있는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무용인을 양성함으로써 무용예술의 차원을 높이고 나아가 인간 본연의 창조와 미의 추구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이바지하는데 설립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이애덕, 1991). 왜냐하면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된 현대무용은 바로 이화여대 무용과의 개설을 시작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현대 무용이 본격적으로 도입 및 발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최명진, 2001).

전문 무용가를 위한 교육과 인재 배출은 주로 대학 무용과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1963년부터 1970년대까지 11개 대학에 무용과가 신설되었다(양정수, 1999). 이 기간 동안 무용과를 신설한 대학을 보면 한양대학교(1964), 경희대학교(1966), 수도 여자사범대학교(현재 세종대학교 1973), 조선대학교(1972), 부산 여자 대학교(현재 신라 대학교, 1973), 중앙대학교(1974), 한성대학교(1974),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1974), 청주여자 사범대학교(현재 서원대학교, 1975) 그리고 청주대학교(1979)가 있다(이가현, 1997).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대학무용교육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각 대학 무용과의 개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양정수, 1999).

1963년에 미국식 현대무용을 국내에 소개한 육완순은 마사그라함의 테크닉을 주축으로 대학 현대무용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많은 무용가들을 양성하여 한국 현대무용의 발전을 가져왔다(양정수, 1998).

한국의 현대무용이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1963년에 국내에

처음으로 미국의 마사그라함 테크닉의 현대무용을 가지고 온 육완순으로 이화여대 무용과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무용을 이끌어온 그는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1963-1991)로 재직해 오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무용가들을 양성해 왔으며 1933년 6월16일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여고를 졸업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 동대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1956년부터 이화여대 부속 고등학교의 무용교사로서 경험을 쌓으며 1961년에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와 코메딕트 대학교에서 무용을 배워 마사그라함 외에도 호세리몽과 엘빈 에일리에게 약 3년간 현대무용을 배운 후 1963년에 귀국하여 마사그라함 테크닉과 과학적인 표현법칙을 바탕으로 한 미국 현대무용을 소개하여 한국 현대무용의 발전에 주력하는데 힘썼으며, 또한 이화여대 무용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오케시스 현대 무용단을 처음으로 조직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동시에 공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1975년에 국내 최초의 동인단체인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이 육완순에 의해 창단된 이후 1980년대는 수많은 현대무용단이 급진적으로 조직되면서 신세대 안무가들이 고도로 훈련된 무용수의 신체, 화려한 의상과 조명, 그리고 무대배경까지 관심 쏟아 현대무용의 기반을 다졌다(이정은, 2014).

1970년대 들면서 전국적으로 대학무용과가 개설됨에 따라 많은 현대무용단들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면 이러한 창단 붐은 현대무용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한국 현대무용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제고하였고 이와 같이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무용단의 창단과 활동은 한국 현대무용 중흥의 산파역할을 하여 현대무용이 공인된 예술장르와 제도로 정착되도록 기여했다(양정수, 1999). 한국 컨템포러리무용단 이후에 생겨난 무용단체들을 살펴보면 현대무용단 둘째(현재 탐, 1980), 네 사람(1983), 코스모폴리탄 현대무용단(1983), 한국현대무용단(1985), 사포현대무용단(1985), 하야로비무용단(1985), 밀물현대무용단(1985), 동랑댄스앙상블(1986), 요로 현대무용단(현재 서울 현대 무용단, 1986), 시리우스 현대무용단(1986), 코스모폴리탄 현대무용단(1986), 틈마루현대무용단(1986), 빛고을현대무용단(1986), 부산현대무용단(1987), 현대무용단 줌(1987), 푸름 현대무용단(1989), 로고 현대무용단(1990), 광주 현대무용단(1992), 지구댄스시어터(1994), 미르현대무용단(1995), 등이 계속해서 창단되었다(이가현, 1997).

1960~70년대 한국현대 무용의 주 예술적 경향은 한국적 소재와 정서를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주요 소재들은 전설, 신화, 종교, 설화, 민속, 무속, 그리고 제의 등과 같은 전통문화와 토속적 사상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1970년대 들면서 마사 그라함 스타일에서 탈피, 한국적 정서에 맞는 새로운 무용양식을 개발하려는 한국적 현대무용의 토착화 작업이 김복희·김화숙 등에 의해 꾸준히 일어났다(양정수, 1999). 이 시기 육완순은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1973)'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표현하였으며, '무녀도(1976)'에서는 무당춤과 현대무용을 결합시키면서 김복희·김화숙은 시대의식을 조명한 '의식의 빛(1971)', 불교와 현대무용을 결합시킨 '법열의 시(1971)', 인간존재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벽(1975)', 고전극을 재해석한 '춘향이야기 중에서(1975)', 인간의 소외감을 표출한 '컴아웃(1978)'. 시, 음악, 무용을 결합시킨 '덧(1978)', 한국적 현대무용을 토착화시킨 '창살에 비친 세 개의 그림자(1979)', 민담에 기초한 '창살에 비친 세 개의 그림자(1979)' 등을 안무하였으며, 김상규는 풍부한 무용적 요소를 지닌 '회귀(1979)'를 안무하였다(양정수, 1999).

1970년대에 전위무용이 소개됨에 동시에 기존의 모든 스타일을 탈 바꾸려는 움직임이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소속의 신세대 무용가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예술적 경향도 타 예술과의 교류, 즉흥, 풍자, 행위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적 접근을 보였다(유희주, 2000). 이 시기 김기전은 뛰어난 공간 활용을 특징으로 한 작품 '산하 역만년, 1970(1970)'과 같은 작품을, 홍신자는 '제례(1973)', '신내(1973)'와 같은 전위무용 작품을 선보였다(양정수, 1999). 이정자는 타 예술과 현대무용을 접목시킨 '탈을 쓰고 올었습니다(1975)'를, 김기인은 인간의 심리묘사를 특징으로 한 '가장자리(1977)'를 발표했으며, 이정희는 행위와 표현주의 기법을 사용한 '누군가 내 영혼을 부르면(1977)'을, 김복희·김화숙은 코믹드라마인 '카페(1977)'를, 서영희·김경옥은 풍자를 특징으로 한 '말(1979)'를 발표했고, 컨템포러리무용단은 공동으로 안무한 '즉흥(1977)'이나 '10R(1978)' 같은 작품들에서는 즉흥음악과 접목한 즉흥연기, 그리고 옴니버스 형식을 각각 선보였다(양정수, 1999).

나. 1980년~1990년 후반

1980년대의 문화예술 정책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안으로는 군사정권의 정통성 시비 속에서만 민.관이 동시에 우리의 문화예술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면서 싹트기 시작했고,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시행된 문화예술정책의 강화는 문화 예술적 욕구를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유희주, 2000). 1980년대의 공연법 개정과 더불어 기존의 소극장들은 다양한 기획과 새로운 제작기법의 도입, 그리고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던 현대무용계는 젊은 무용가들에게 의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안무 경향은 동작 자체에 중점을 둔 경향,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표현 영역의 확대 경향, 동작의 상징성에 그 이미지를 결합한 경향, 그리고 다양한 양식을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표현한 경향을 보였다(양정수, 1999). 1980년대의 한국 현대무용의 대표적인 동향 중에 하나인 ‘현대무용의 한국화 작업’은 안무가들의 다양한 개성과 표현 형식이 시도되는 가운데 작품 주제와 소재와 관련해서 한국적인 것의 수용이 강했다(이정은, 2014). 그 대표적인 예술적 특징은 마사그라함의 테크닉에서 탈피하여 무용가들의 자신만의 색을 찾았고, 함께 한국적인 주제와 소재를 선택한 개성 강한 무용 작품들이 등장하였다(양정수, 1999). 또한 88아시안게임, 88서울 올림픽, A.D.F.서울행사, 그리고 KIDE행사 등을 통하여 내한한 외국 현대무용단의 작품이 다양한 안무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무용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 시켰다. 또한 국내 현대무용단의 활발한 해외공연은 한국적 색채가 강한 것부터 실험적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공연함으로써 국제무용교류를 확산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이정은, 2014).

다. 2000년~2020년

2000년대 한국 현대무용계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국내 무용계 활성화 및 국제 교류의 확산, 페스티벌, 기획공연, 소극장 공연 및 야외공연의 증가, 춤 공연장 공간의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도와 발전 등이 있다(이정은, 2014). 이 시기 국제화 추세를 따른 세계 정상 무용단체들의 내한, 이로 촉발된 한국 현대무용계의 발전, 국내 무용가들의 해외 진출 등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젊은 무용가의 활동과 남성무용가의 증가가 눈에 띄게 일어났다(이정은, 2014).

2010년에는 국립현대무용단이 창설되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춤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와 사회,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적 컨템퍼러리 댄스를 지향'하며, 2021년 현재까지 1대 홍승엽, 2대 안애순, 3대 안성수, 4대 남정호에 이르기까지 총 4명의 예술 감독이 거쳐 갔다(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에서는 예술 감독의 공연과 외부 초청 안무가 공연 이외에도 해외 안무가 초청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해외 투어공연 등을 통해 우수한 한국 컨템퍼러리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지역 공연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컨템퍼러리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김성용, 2021).

한편, 2010에는 국내 현대무용수들과 해외 현대무용수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경쟁력 있는 무용수 발굴을 위해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KICDC)가 창설되어 매년 프리주니어(Pre-junior), 주니어(Junior), 시니어(Senior)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진출 가능한 우수 무용수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여 개국 이상에서 많은 무용수가 이에 참가하고 있다(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2. 연구 경향

한국의 현대무용의 흐름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한국 현대무용의 빠른 성장과 높은 수준에 이른 것 과 비교해보면 학문적 이론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노주원(1985)은 “한국 현대무용 발전사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현대무용 발생을 60년 이후 개관된 공연 작품들의 자료 중심의 연구를 다루고 있다.

김애진(1988)은 “한국 현대무용의 주제에 대한 고찰”로 60년대 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를 분석했다. 반주은(1989)는 “1980년대 한국 현대무용에 나타난 표현주의적 요소에 관한 고찰”로 서양의 현대무용 태동과 표현주의적 양식을 비교하여 1980년대 한국 현대무용에 나타난 요소들을 연구했다. 최경희(1992)는 “한국에 있어 현대무용의 한국화 작업에 대한 고찰”로 한국적인 주제를 활용한 작품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복희(1993)은 “한국 현대무용의 한국적 전개과정에 나타난 유형별 특성분석”을 통해 한국의 현대무용 한국화 과정을 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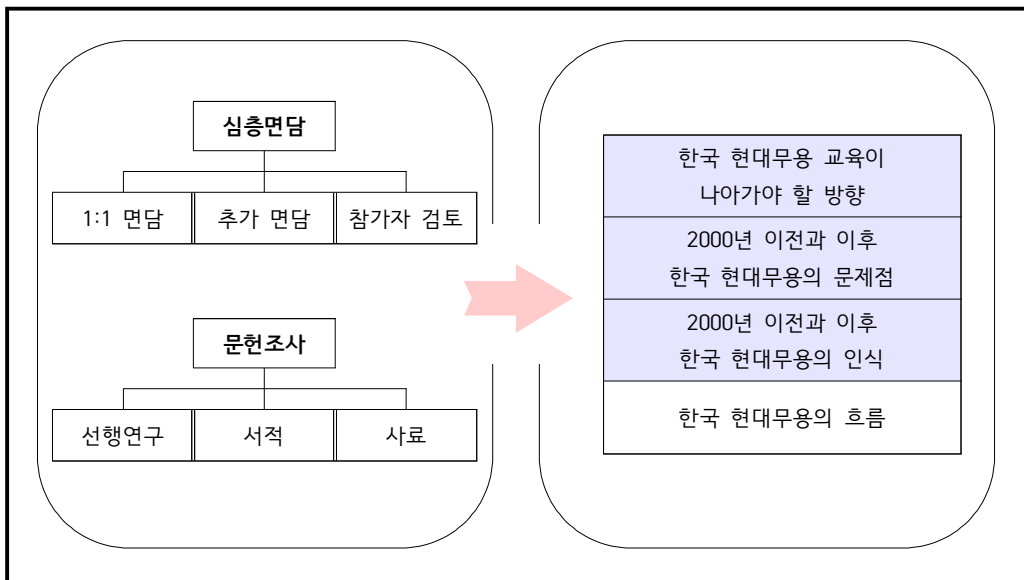
박현아(2001)은 “한국현대무용 시대적 흐름에 관한 연구-국제현대무용제 중심으로”를 통해 한국의 국제 무용제의 흐름을 살피고, 한국현대무용의 발전 동향을 비교 분석했다. 이정은(2014)는 “ 한국 현대무용의 유형별 특성과 시기별 흐름 분석-서울무용제를 중심으로”를 통해 서울 무용제의 현대무용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무용의 유형별 특성과 시기별 흐름을 분석했다.

윤현숙(2007)은 “대구지역 무용의 흐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구지역 무용의 시대적 흐름을 고찰하였다. 박은정, 민현주(2009)는 “한국사회 변동과 현대무용의 전개 양상”을 통해 사회변동이 현대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단(2014)은 “한국과 중국의 현대무용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 현대무용의 발전 상황을 분석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현재의 한국 현대무용이 가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고찰 및 심층면담의 과정을 통해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설계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질적 연구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비확률적 표집에 의한 목적표집법을 선정하였다. 목적 표집법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전집을 잘 대표할 수 있고, 연구 목적에 합당하며, 연구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표본의 사례로 삼는 방법이다. 이러한 표집 방법의 특성은 일반화 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보다는 특정 상황에 대한 심화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이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질적 연구 전문가 및 무용교육 현장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이 연구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무용교육 현장의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K대학교 무용학과 명예교수 1명, C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 교수 1명, 전 W대학교 예술학부 무용전공 교수 1명 총 3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하였으며,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가자

연구 참가자
K대학교 무용학과 명예교수
C대학교 공연예술 무용과 전임 교수
전) W대학교 예술학부 무용전공 교수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계획 수립, 예비조사, 자료 수집, 결과 분석, 논문 작성 순으로 계획 수립 시 선행연구 분석과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면담지를 구성하고 연구 참여자 선정,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서는 자료 수집 계획, 문헌조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빈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중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결과분석에서는 면담 내용을 전사 및 범주화를 진행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 논문 작성 절차에서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연구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과 같다.

<표 2> 연구 절차

연구 절차	내용
1. 계획 수립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연구 방법 선택
2. 예비조사	-면담지 구성 -연구 참여자 선정 -예비조사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계획 -문헌조사, 심층면담 -수집자료 비교, 내용 파악
4. 결과 분석	-면담 내용 전사 및 범주화 진행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비교 분석
6. 논문작성	-최종 결론 도출 및 연구 보고 -논문작성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 전북, 충남의 대학교 무용과의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무용 교육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질적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을 활용한 한국 현대무용의 흐름 관한 문헌 조사와 무용경력 45년 이상의 무용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대학교의 무용(학)과의 교육현장에서 오래 재직한 전문가들과의 과거와 현재의 한국 현대무용의 인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사, 부호화, 범주화, 주제화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에 대한 자료의 분석은 인터뷰 자료를 전사한 후, 이를 계속 읽으며 의미단위를 추출하는 개방코딩을 거쳐, 비슷한 의미단위끼리 묶는 범주화 및 진술의 핵심을 추출해 내는 주제화를 수행하였다.

가. 심층면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심층면담 방법은 면담이 이루어지기 2주일 전에 면담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갑작스러운 질문은 면담자가 당황할 수도 있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와 심층면담의 자료 수집의 정확성과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자료수집절차

단계	날짜	내용
문헌조사	2021.3.2.~2021.10.30	한국현대무용관련서적, 선행연구 분석
예비면담	2021.6.24.~2021.8.25	면담 질문지 적절성 검토, 문제점 탐색, 최종 질문지 완성
심층면담(2회 실시)	2021.9.27.~2021.11.22	구조화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연구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Spradley(1980)의 문화 연구 분석 방법이다. Spradley(1980)은 문화현상을 파악하는 문화 기술적 연구의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범주 중 공통성 또는 의미론적 관계를 가진 총괄적 핵심범주를 찾아내는 영역분석(domain analysis), 이러한 총괄적 핵심범주 내에 속하는 다양한 범주 중 관계가 있는 것들을 묶는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하위범주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 범주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원리 또는 사실을 찾아 전체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주제 분석(theme analysis) 등의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주제 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Spradley(1980)는 문화기술적인 탐구는 관찰과 분석이 반복되는 과정이며, 분석 또한 질문의 발견과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pradley(1980)와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이에 등장하는 주제와 세부내용들의 목록을 부호화하였으며, 이후 광주·전북·충남 현대무용 문화의 역사, 최근 현대무용계의 변화, 현재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네 가지 상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이후 각 범주와 관련하여 공통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증언을 분류하였다. 이후 도출된 원리들을 문헌연구와 비교하여 전체 문화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6.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에는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의 협력이 중요시 되며,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진실성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는 연구자의 정직성을 신뢰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비밀과 익명성이 안정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알 권리가 있으며, 만약 어떠한 이유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점은 명확히 공지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연구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녹음 및 개인적 비밀과 익명성에 대해 공지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광주, 전북, 충남의 대학교 무용과의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무용 교육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질적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을 활용한 한국 현대무용의 흐름 관한 문헌 조사와 무용경력 45년 이상의 무용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대학교의 무용(학)과의 교육현장에서 오래 재직한 전문가들과의 과거와 현재의 한국 현대무용의 인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 부호화, 범주화, 주제화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에 대한 자료의 분석은 인터뷰 자료를 전사한 후, 이를 계속 읽으며 의미단위를 추출하는 개방코딩을 거쳐, 비슷한 의미단위끼리 묶는 범주화 및 진술의 핵심을 추출해 내는 주제화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0년대 이전, 이후, 앞으로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 그리고 한국 현대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도출하였다.

1.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가. 2000년대 이전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현대무용은 근대의식에서 출발한 주제의식, 이에 따른 기법, 의상 등의 변혁에서 비롯되었으며, 억압된 것에 대한 탈출이라는 측면에서 발레와 크게 변별된다(김호연, 2020).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 현대무용의 태동기에는 춤의 장르 개념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1945년 매일신보에 실린 <현대무용>이라는 글에서는 한국에서 행해지는 무용이 발레 계통, 무용시를 표방한 것, 향토무용 또는 이를 표방한 것 등으로 나뉜다고 하며 발레는 부족하고, 무용시는 방법론이 미비하고, 향토무용은 조선 무용도 서양무용도 아닌 형태에 머문다고 하며 한국의 무용계를 비판하였다(김호연, 2020).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3년 이화여대에 최초로 국내 무용과가 신설된 이후 한국의 현대무용은 본격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현대무용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1980년대를 기점으로서는 미국식 현대무용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었고, 1990년대에는 유럽식 현대무용의 유입으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현법의 모색이 이루어졌다(박은정, 민현주, 2009).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립현대무용단이 창단되고, 우리나라에 세계 정상 무용단체들이 내한하고, 국내 무용가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등 한층 더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이정은, 2014).

이러한 한국 현대무용의 흐름 속에서,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현대무용 커리어를 시작하던 시기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대중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다. 당시의 대중들은 현대무용이라고 하면 무당 또는 백댄서를 연상하고, 무용이라고 하면 발레를 연상하는 등 현대무용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광주에서는 1971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가 신설된 후, 졸업생들이 전문적인 발레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6년 발레단인 광주시립무용단이 창설되었다(박금자, 2013). 광주시립무용단의 존재로 광주의 대중들이 발레 공연을 접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발레에 가려져 현대무용에 대한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편견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 당시 광주에서 무용의 중심은 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무용이었죠. 광주에 시립무용단이 있었고 박금자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의 모든 사람들은 무용하면 발레만 떠올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대무용이라는 장르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관객들에게도 끊임없이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현대무용이라고 하면 가수 뒤의 백댄서를 연상했고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I 교수).

충남지역의 전문가도 커리어를 시작하였던 시점에는 예술 중에서도 무용이 천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 때문에 무용을 시작하는 데에도 가족의 반대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50년 전의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었고, 예술 특히 무용은 천한 인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일본 명치대학 법학과를 나오신 아버지에게 우리 집안에서의 무용인식은 전혀 허용이 안됐었습니다.” (K 명예교수).

전북지역의 전문가는 현대무용을 무당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등의 편견이 있었으며, 무용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호감이 현재만큼 높지 않았다고 하였다.

“무용에 대해 대중들의 호감이 있거나 열린 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사람들도 부채춤을 추거나 방울을 가지고 오면 무당이 될 거냐 그런 정도의 시각이었어요. 저는 인천 출신인데 인천은 서울의 위성 도시라 서울의 그늘에 가려서 그렇게 발전적이지는 않았는데, 당시 다니던 학원이 김매자 선생님이 하던 학원이고 전문 무용수들이 많이 배출된 학원이라 그런 걸로 가족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O 전 교수).

즉, 전문가들이 커리어를 시작하던 시점에는 예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무용에 대한 것은 천한 것으로 인식하는 시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무용단 활동을 하는 와중에서도 발레 등 다른 장르에 비해 현대무용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편견을

갖고 보는 시각은 여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 2000년대 이후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박은정과 민현주(2009)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창단된 현대무용단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반 관객들이 무용을 친숙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는 최명진(2001)이 무용(학)과의 확산과 대학 동문무용단들이 현대무용 확산과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즉, 현대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현대무용단들의 활발한 공연활동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광주지역의 관객들에게 현대무용이란 낯선 장르였으며, 광주에서 활동하면서 관객들에게 현대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하나의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관객들에게 발레도 있지만 현대무용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 것은 많은 공연을 통해서이다.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였고, 이는 많은 학생들이 공연을 접하고 동문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제일 처음에는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아시아문화전당 자리에 있었던 3층 건물인 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다음에는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소극장에서 공연을 많이 했고, 이후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공연장소가 변화하고 있다” (I 교수).

또한 무용제의 참여를 통한 성장이다. 최은미(2002)는 1992년에 창립된 전국무용제가 관객과 예술가가 빈번하게 교류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타 예술분야와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춤 문화예술의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광주지역의 전문가 또한 전국무용제에 참여하여 수상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공연 스태프들이 확고히 구성되는 등 공연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무용제에서의 수상 등을 통해 무용가, 안무가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등 무용제의 참여가 여러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하였다

“92년도에 전국무용제가 만들어지면서 1회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전국무용제에서는 대통령상 3관왕(2003),(2005),(2012), 우수상(2006),(2007), 금상 (2009),(2015), 장려상 1회(1999), 안무상 4회(2003),(2005),(2009),(2012), 연기상 6회(1996),(2003),(2005),(2009),(2012),(2015), 한국예총광주지회공로상(2000), 코파나스상(2001), 광주문화예술문화상(2003), 광주광역시 교육감공로상(2008), 광주문화재단 표창상(2015) 등의 수상 통해 조선대학교 무용과의 성장과 광주지역 현대무용의 예술성을 전국에 알리게 되었다. 그 당시 전국무용제에서는 팀명으로 학교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광주현대무용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참가하였고, 광주의 무용하면 조선대학교를 연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계기가 되었다” (I 교수).

광주에서 광주 현대무용단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것처럼 충남에서도 공주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코스모폴리탄 현대무용단이 충남지역 및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공주대학교의 무용과는 1980년 공주사범대학교 무용교육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코스모폴리탄 현대무용단이 창단되었다. 충남지역은 서울과 더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 상 서울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국무용제 뿐 아니라 국제현대무용제 등 국제적 교류의 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스모폴리탄 현대무용단은 범우주적인 내용이 담긴 무용단으로, 광주지역 예술문화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10년 간 서울에서 활동하였고 충남의 유일한 현대무용단으로 활동하였다.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 러시아 무용교육상도 받았으며 초창기 국제현대무용제에 공연 참가를 하였고 한국 현대무용의 코파나스상도 수여하였다. 초창기 국제현대무용제에 공연 참가를 하였고 개인무용 코스모폴리탄 무용단과 수십 차례 공연하였다.”

전북에서 원광대학교 무용과는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졸업생으로 구성된 오문자 & 알타비아 현대무용단, 김화숙 & 현대무용단 사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94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서울과 전라북도를 오가며 공연했다. 전라북도과 충청남도 지역 순회공연을 하기도 했고, 광주, 속초, 춘천

등의 지역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1999년 전국무용제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고 2000년에는 「폭풍속의 아리아」로 참여, 전북을 빛낸 중견 춤 작가전과 전라 예술제에서는 「흙치다, 도망치다, 타다」 공연, 2001년에는 전국 무용제와 서울공연 예술제 야외 페스티벌에서 「아홉개의問」 공연, 2003년에는 전라북도 무대공연 지원 작품 「Dark blue petition-프리다칼로 이야기」, 2010년에는 전라북도 무대 공연 작품 선정작 「황금연꽃」, 같은 해 전국무용제에서 금상과 안무상을 수상하는 등 무용 공연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 (O 전 교수).

2000년대 이후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현재의 무용예술이 활발한 활동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의 무용예술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현재의 무용예술은 세계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활동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K 교수).

현재 한국무용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발전한 것에는 위와 같이 현대무용단들의 활발한 공연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 앞으로의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2000년대 이후 대중문화에 대한 전망이 자라면서 대중적인 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대학에서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실용무용과가 신설되기 시작하였다(황희정, 안병욱, 2020). 즉, 기존의 무용과는 축소와 통폐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용무용이라는 새로운 조류의 등장으로 현대무용은 전문성과 정체성을 더욱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기류 속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현대무용에 관해 '융합'과 '전문성'으로 설명하였다.

한 전문가는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장르의 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이러한 가운데

데 현대무용이 다른 무용 장르 뿐 아니라 국악이나 샌드아트와 같은 장르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도를 활발하게 시도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2000년대와 2010년대의 현대무용계의 특징으로 점점 활발해지는 국제적인 교류 및 공연장 공간 확대 등의 다양한 시도와 발전 등을 들었으며 이 기간 동안 , 페스티벌이나 기획공연 등의 다양한 공연기회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전문가는 이러한 융합의 흐름이 이후에도 이어져 다른 장르와의 활발한 교류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전에는 현대무용 공연을 한다고 하면 무용만 하면 됐다. 그런데 2011년 즈음해서 '융합예술'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여 융합예술에 힘썼다. 2010년~2013년, 4년 연속 공연장상주 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움직임 감성프로젝트」를 주제로 하여 관객이 무용수가 되어 직접 참여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 2010년, 광주 남구청 슬로건 ‘효사랑 남구’에 맞추어 ‘효녀심청’설화를 모티브로 한 국창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가객.歌客국창.國唱 임방울을 노래하다」, 2012년에는 광주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한 「빛고을아리랑 모정」, 2013년에는 광주시립 무용단 정기공연 브랜드 창작 발레 「K- 아리랑」 공동안무로 참여, 2015년에는 아리랑 축제 우수작품에 선정되어 「U리랑」 등 광주지역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공연 개발에 목적을 둔 맞춤형 특색공연을 제작하여 우수레퍼토리와 융합예술의 총체적무대로의 공연활동을 다양한 장르와 융합된 작업을 활발히 하였다” (I 교수).

또 다른 전문가는 앞으로의 무용의 대중화는 무용계에서 전문적인 무용수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제도와 공연에 관련된 사회적 제도들이 확립된다면,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좋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무용의 대중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O 전 교수).

즉, 전문가들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던 앞으로의 현대무용은 더욱 넓어진 저변과 활발한 교류, 그리고 시스템의 전문화를 통한 대중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현대무용의 문제점

가. 2000년대 이전의 현대무용의 문제점

한 전문가에 따르면 2000년대 이전 현대무용의 문제점으로 무용수 양성의 어려움 및 결혼으로 인한 무용수의 경력단절 등을 꼽았다. 전문가는 서울이 아닌 지방의 제한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 무용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한 무용수가 결혼으로 인해 은퇴하게 되었을 때의 허탈함을 이야기하였다.

"무용수 한 명을 길러내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무용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무용수 본인, 안무가, 본인 선생, 부모의 지원 등이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주연무용수로 힘들게 성장한 무용수들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가면 그게 상처가 됐다. 그게 아마 1999년도의 일이다" (I 교수).

하나경(2017)은 여성 직업무용수의 비자발적 은퇴의 공통적인 원인은 결혼이라고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은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였지만 결혼으로 인한 은퇴는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은퇴라고 하였다.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으로 인한 여성 직업무용수들의 비자발적 은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인 것을 알 수 있다.

나. 2000년대 이후의 현대무용의 문제점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술은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 '경제적인 부담감', '입시 위주의 작품 활동'의 소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전문가들은 독특성, 주관과 독창성이 결여된 흐름이 현재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이라고 진술하였다. 움직임으로만 승부하려 하거나,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작품성이 뒤떨어진다고 치부하는 것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생각을 뒤집어 창의적인 시각으로

발견하는 힘이 아쉽다고 지적하였다. 김호연(2020)은 현대무용이 자아의 깨달음에서 출발한 근대의식에 기반하며 억압된 것에 대한 탈출이 현대무용을 발레로부터 변별 짓는 큰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인식한 현재의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은 모방에 치중되어 있어 이러한 현대무용의 본질을 잇기 쉽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전문가는 이처럼 현대무용의 특징이 고유한 독특성과 주관의 힘인 것에 반해 현재의 현대무용은 모방 및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무용과는 달리 현대무용은 모든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독특성과 주관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현재의 현대무용은 전체의 흐름과 모방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흐름에서 벗어나면 작품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그러한 관점을 버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K 명예교수).

전북지역의 전문가는 움직임이나 기술적인 완성도 뿐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인 주제를 발견해 내는 힘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현대무용은 그렇게 생각을 뒤집는 힘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해외 페스티벌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작품이 잘 선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했습니다. 참 기계처럼 잘 움직이는데 개성이나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 주제가 없다. 외국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해 내는 것이 없으면 초대가 안 됩니다. 올 해 동아콩쿨, 서울국제, 코리아 국제 다 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 심사위원들이 둘 또는 넷 이렇게 와서 같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갖는 거예요. ‘너네는 여기서 찍어냈니?, 작품이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다 똑같을 수 있을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하다. 대학을 가야하니까... 재해석 하는 힘이라든지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면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O 전교수).

둘째, 전문가들이 지적한 현재 한국 현대무용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입시 위주의 작품 활동이다. 대입을 위해서는 콩쿨에 나가야 하고, 콩쿨을 위해서는 기계적인 연습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인 연습에만 익숙해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창의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미영(2016)은 현재의 입시제도 때문에 예술 고등학교에서도 무용 실기 교육은 단순한 동작기술의 설명, 자세 및 기술습득 지도 등 기초실기수업 방식으로 편성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전북지역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하고 같은 패턴에서는 똑같이 콩쿨을 많이 해야 하고, 콩쿨이 입시로 이어진다. 입시로 너무 지쳤고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에 기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려면 창의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늦는다. 늘 생각하고 늘 접하고 늘 만들어 보고 해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기계처럼 연습하다가 A, B, C, D, G, E, F만 조합하는 것은 안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막막함을 겪게 된다” (O 전교수)

셋째로,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부담감을 현재 한국무용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 졸업 후 전공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문제점, 공연을 하는데 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품의 질에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박성혜(2020)는 무용 공연을 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이 관여되는데다가 고도의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보이는데 반해, 공연 자체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채산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업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순수예술로서의 공공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용 공연에 대한 공적 기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충남지역의 전문가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동안 끈기 있게 재능을 개발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술 교육의 큰 문제점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문화가 발전되듯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학생에게도 주어지는 재능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재능은 끈기라는 말이 있죠. 그 재능을 개발하려면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하고 발전이 되므로 선진국 계열에 앞장 서야 된다는 것이 사료 됩니다” (K 명예교수)

전북 지역의 전문가는 공연을 한 번 하기 위해 무용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부담을 지면서 좋은 공연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무용가가 스스로 공연에 초대하면서 티켓을 팔면 무용가는 언제나 마이너스에요. 연습하는 기간, 의상, 작품, 음악, 팸플렛, 극장 대관료 등 이런걸 다 부담하고 좋은 작품을 가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O 전교수)

광주 지역의 전문가는 학생들이 무용과를 졸업한 이후 계속 이를 개발하고 확장시켜야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나면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대무용 전공을 하고나서 각자가 자기 전공을 개발하고 더 확장시켜야하는데 그런 게 경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죠” (I 교수).

이상과 같이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2000년대 이후 현대무용의 문제점은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입시 위주의 작품 활동',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한국 현대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가. 현대무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상에서 다룬 현재의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대무용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커리큘럼의 특성화'와 '학문과 이론의 병행'을 제안하였다. 채주희(2008)는 미국의 대학과 국내대학의 무용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국내 무용학과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해당 연구의 제안에는 학교마다 특성화된 뚜렷한 교육목표를 설정할 것, 체계적이고 합일된 교과과정을 제공할 것, 사회와 연결된 실질적이고 유연한 교과과정을 개설할 것, 무용과 인접한 타 학문과 연결된 교과과정을 개설할 것, 사회의 전문단체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특성화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기관 및 시설을 설립할 것,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수진을 확보할 것 등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커리큘럼의 특성화 및 인접 교과과정 개설 등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문가들은 한국 현대무용계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커리큘럼의 특성화를 제시하였다. 커리큘럼의 특성화를 통해서 더욱 전문적인 인력을 길러낼 수 있을 때, 현재 무용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전북 지역의 전문가는 커리큘럼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해서만이 학생들이 이후 무용분야의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이 커리큘럼의 특성화가 되어있지 않는 한 학생들한테는 나와 같은 똑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왜냐면 세상이 바뀌면 무용을 통해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먹고살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장 건강한 과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우리는 실은 대학교를 나와서 작가로서의 무용가로써의 삶보다는 레슨하고 예술 강사하고 이리다 보니까 무언가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적

거든요. 그만큼 특성화된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춤만 춰서 먹고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기위한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결국 무용과의 문제로 같이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O 전교수).

둘째, 전문가들이 제시한 또 하나의 해결방안은 학문과 이론의 병행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현대무용에 있어 철학적, 인문학적 바탕 및 이론적, 학문적인 측면이 병행되어야 현대무용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의 전문가는 무용교육에 예술교육, 철학, 심리학이 바탕이 되어야 무용교육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의 대학이 줄어들게 됩니다. 몇 년 사이로 지방의 무용학과는 전부 폐지되었으며 국립대학만이 존재하면서도 충남과 대전에 있는 세 개의 국립대학이 공동 학점제와 운영체제가 계획화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감으로 무용 교육의 큰 우려가 일어난다면 자연과의 예술교육과 철학적 심리적 움직임의 바탕인 교육적 가치성을 현대무용 교육에 투입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K 명예교수)

광주 지역의 전문가는 공연 뿐 아니라 무용과 관련된 이론과 학문적 측면들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무용은 다른 학문과 달리 공연을 통해 모든 것을 알리게 된다. 앞으로는 공연 뿐 아니라 무용에 관계되는 이론적, 학문적 측면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용이라는 전공 영역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견문을 갖고 있다. 우리 때는 직접 다니거나 사와야 했던 세계의 것들을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앉은 자리에서 접할 수 있다. 우리도 무용에 관계되는 학문적인 것은 연구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I 교수)

전북지역의 전문가는 현대무용이 인문학적 바탕과 철학을 통해 사유의 힘을 갖추어야만 다른 예술분야와 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의 힘이 현대무용의 경쟁력이 되어 관객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내가 움직이면서 나의 변화 내지는 내가 공간을 보는 새로운 눈, 그러한 구조적인 걸 배웠으면 하는데 이에는 인문학적인 바탕과, 철학과 같은 많은 요소들을 동원해서 움직임이라는 것이 단지 누구를 따라하고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유를 새로운 이미지로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수업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렇다고 테크닉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질문을 던져야 춤도 그림이나 조각, 건축, 음악 등과 견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예술 분야와 견주었을 때 힘이 떨어지면 결국 관객은 오지 않는다. 조금 더 사유의 힘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자기 삶에서 항상 인간에 대해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그 답이 철학에서 올 수도 있고 신화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많은 것에서 올 수 있다. 나만이 아는 추상적인 작품을 해서는 결코 사람이 오지 않는다. 공감할 수 있으려면 전 세계가 고민하는, 인류가 고민하는, 한 인간이 고민하는 것에 천착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낼 수 없다. 예쁘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유만 하다 보면 뭘 하나를 보려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연습된 기량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 (O 전교수).

나. 현대무용공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현대무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안은 무용교육의 측면과 무용공연의 측면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용공연의 측면에서 현대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북지역의 전문가는 무용공연에서 전문화와 협업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된 무용교육 커리큘럼의 특성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무용교육의 특성화로부터 시작된 전문 인력의 양성이 결국 무용공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같으면 조명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다던가, 무용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상상해서 쓴다던가하는 협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국 무용에서는 자

기가 다 해야 한다. 춤도 춰야 하고, 자기가 상상도 해야 하고, 스크립트도 써야 하고, 좋은 비디오 작가 연결도 해야 한다. 내 힘으로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 스크립트라던지 좋은 내용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춤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좋은 작품을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무용가가 상상 못하는 것에 대한 조력자들이 필요하다. 좋은 글과 사상, 그것을 움직임으로 이미지화 하는 과정을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만나서 해야 하는데,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 (O 전교수)

한편, 광주지역의 전문가는 한국 현대무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공연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삶에 더 녹아든 공연문화를 제시하였다. 즉, 현재까지의 현대무용이 무용제 및 공연장 등을 통해 고급화와 예술성을 추구하였다면, 앞으로의 무용공연은 탄탄한 예술적 기초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공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무용, 그리고 치료적 가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치를 지닌 무용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했지만, (앞으로는) 삶 속에 공연이라는 개념이 녹아 들어가야한다. 소규모의 앙상블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하면서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 또한 무용을 통한 치유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I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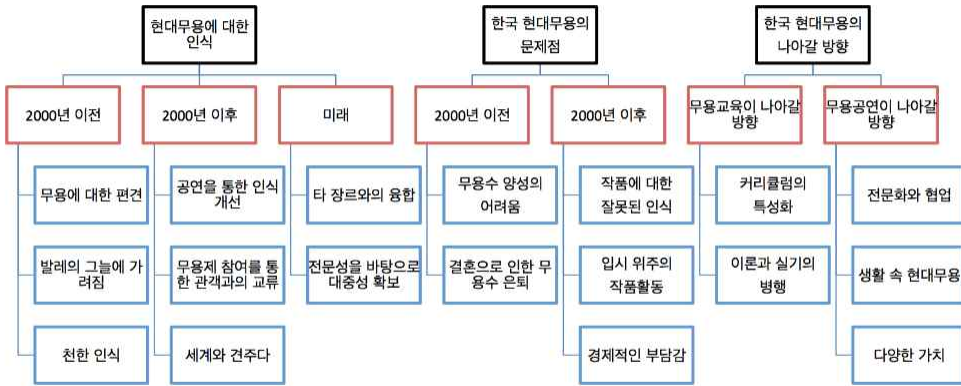
V. 논의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논의1은 현대무용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전문가들이 느낀 현대무용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인식 차이, 논의2는 현재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 논의3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무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연구결과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2000년 이전	무용에 대한 편견
		발레의 그늘에 가려짐
		천한 인식
	2000년 이후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무용제 참여를 통한 관객과의 교류
		세계와 견주다
앞으로의 인식	타 장르와의 융합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중성 확보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	2000년 이전	무용수 양성의 어려움
		결혼으로 인한 무용수 은퇴
	2000년 이후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입시 위주의 작품 활동
		경제적인 부담감
한국 현대무용이 나아갈 방향	현대 무용 교육	커리큘럼의 특성화
	이 나아갈 방향	이론과 실기의 병행
	현대 무용 공연	전문화와 협업
	이 나아가야 할 방향	생활 속의 현대무용
		다양한 가치

이러한 연구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결과

1. 논의

가.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전문가들이 처음 무용인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던 과거에는 예술 전공 또는 무용을 천하게 여기는 시선이 있었으며, 특히 현대무용은 인지도가 높지 않아 발레의 그늘에 가려지거나, 또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의 시선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대중에게 현대무용을 알리게 된 것은 대학의 무용과를 중심으로 한 현대무용단들의 활발한 공연활동을 통해서이다.

광주에서는 1971년 지방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무용과가 설립되었으며, 1976년 창설된 광주시립 무용단에는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이 입단하여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였다. 이는 전 광주시립무용단의 박금자 단장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박금자 단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에 무용과가 생긴 이후 졸업생들이 직업무용단에서 전문적 발레단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1976년 광주시립무용단이 창설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광주지역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무용제의 참가를 앞두고 조선대학교 무용과 학생들로 구성된 광주현대무용단이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무용단들은 광주지역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며 지역의 공연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충남에서는 1980년 공주사범대학교에 무용교육과가 설립되었으며, 공주사범대학교 무용교육과는 1996년 인문사회과학대학 무용학과로 개편되었다. 마찬가지로 충남에서도 공주대학교 무용과 학생들로 구성된 코스모폴리탄 무용단이 구성되어 공주지역과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코스모폴리탄 무용단은 공주에 기반을 두고도 서울에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도 역시 1980년대에 설립된 원광대학교 무용과 학생들로 구성된 오문자&알타비아 현대무용단이 활동하였다.

전문가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지역 현대무용의 역사는 양정수(1999)의 <한국 현대무용사>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양정수(1999)에 따르면, 1970년대 들면서 전국적으로 대학무용과가 개설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현대무용단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창단 붐은 현대무용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한국 현대무용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현대무용단들은 한국 현대무용 중흥의 산파역할을 했으며 현대무용이 공인된 예술장르와 제도로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 광주, 충남, 전북 지 전문가들의 진술에 나타난 각 지역의 서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현대무용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진술 속에 녹아있는 한국 현대무용의 역사를 고찰하여 보면, 각 지역 대학의 무용과들이 여러 현대무용단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현대무용단들이 현대무용의 대중화, 국내외 한국 현대무용의 위상 제고 등을 통해 한국에서 현대무용을 중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과거의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 및 현재 한국 현대무용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과거의 문제점은 전문무용수를 키워내는 일의 어려움과 결혼으로 인한 무용수의 경력단절 등이 있었다. 하나경(2017)에 따르면 결혼으로 인한 여성 직업무용수의 비자발적인 은퇴는 현재에도 계속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으로 무용단을 꾸려야 했던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의 현대무용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입시 위주의 작품 활동,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입시 또는 입시를 위한 콩쿨 등을 목표로 기계적인 연습을 하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 후에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이미영(2016)은 현재 입시제도 때문에 예술 고등학교에서도 무용 실기 교육은 단순 동작기술의 설명, 자세 및 기술습득 지도 등 기초실기수업 방식으로 편성 및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현재의 입시제도가 불명확한 목적 및 비효율적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치명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점검하고 무용교육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의 현대무용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한 또 다른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담감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무용을 계속 추구하거나, 좋은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 박성혜(2020)는 무용공연을 하는데 많은 인력이 관여되며 고도의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보이는데 반해 공연 자체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 채산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무용공연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업적인 한계를 보이지만, 순수예술로서의 공공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금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예술영재의 지원 등 재능 있는 무용영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존재하나 그 범위는 제한적이며, 그러한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학 졸업 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용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 졸업 후 작품 활동을 하고자 하는 무용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 한국 현대무용이 나아갈 방향

본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인 한국 현대무용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개선방안으로 특성화된 커리큘럼 및 학문과 이론을 병행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각 대학 무용과의 커리큘럼이 현재보다 더 전문화와 특성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테면 김희정(2015)은 국내 4개 대학의 무용과 커리큘럼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인 무용과들은 각각 예술대학, 체육대학, 예체능대학, 이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용과의 교육과정은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지 못했다. 예를 들어, 예술대학에 속한 무용학과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의 특성 및 장점을 살려 다른 예술분야와의 활발한 융·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잠재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연구의 연구자는 무용과마다 실기교과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위한 이론교과의 비중이 낮다고도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하여 각 단과학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할 것, 진로와 취업 등을 위한 실용적인 무용교육과정을 설계할 것 등의 열 가지 해법을 제시하였다. 김희정(2015)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본 연구에 참여한 원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원로 전문가들은 커리큘럼의 특성화와 이론 및 실기의 병행을 통해 무용과 졸업생들이 전문성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졸업 후 무용계의 전문화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무용교육의 전문화는 또한 무용 공연 인력의 전문화와도 연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유리(2016)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분석하였다. 교

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 한 참여자는 현재의 실기위주 교육과정 하에서는 졸업 후에 실기를 포기하게 되었을 때 전공을 살리기가 힘들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해당 참여자는 졸업 후 무용과 관련된 기획이나, 안무, 의상, 조명과 같은 여러 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원로 전문가들의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원로 전문가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러한 전문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무용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전국의 무용과 중 본인이 원하는 전문적인 진로에 특화된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각 대학의 경쟁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문화를 통해 대학 졸업생들의 경쟁력과 국내 현대무용계의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원로 전문가들은 현대무용에 수반되는 창의성이 철학적 사유 및 인문학적 바탕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명지(2011)는 융복합에 기반해 대학 무용교육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창의적 사고를 위한 융복합 교과목의 예로는 "소재와 모티프 분석, 공연 작품분석, 즉흥 동작, 공연연출의 역사와 원리, 안무 원리와 방법, 예술과 창의적 상상력, 신화와 문화콘텐츠" 등이 있다. 이처럼 교과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무용과 학생들이 사유의 깊이와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채주희(2008)는 미국의 대학과 국내대학을 분석하여 학교마다 특성화된 뚜렷한 교육 목표를 설정할 것, 체계적이고 합일된 교과과정을 제공할 것, 사회와 연결된 실질적이고 유연한 교과과정을 개설할 것, 무용과 인접한 타 학문과 연결된 교과과정을 개설할 것, 사회의 전문단체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특성화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기관 및 시설을 설립할 것,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수진을 확보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특성화된 커리큘럼 및 연계학문과의 병행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각 대학 무용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용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무용공연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광주, 전북, 충남의 대학교 무용과의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무용 교육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질적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행본, 논문 등을 활용한 한국 현대무용의 흐름 관한 문헌 조사와 무용경력 45년 이상의 무용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 면담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 부호화, 범주화, 주제화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가.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

광주·전북·충남의 현대무용의 역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층면담을 통해 1960년대 이후 현대무용이 큰 발전을 이루어 오는 동안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발전 및 인식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대학의 무용과에 기반을 둔 현대무용 단들의 활발한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대학교 무용과는 각 지방의 현대무용 문화의 산실이었으며, 지방대학교 학생 및 졸업생들로 구성된 무용단이 전국 및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현대무용의 존재감을 강화하였고, 전국무용제 등의 무용제를 통해 이러한 지방의 무용단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빠른 속도로 현대무용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각 대학 무용과의 개설이라는 문헌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의 현대무용은 1963년 국내 최초로 신설된 이화여대 무용과를 시점으로 현대무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화여대의 무용과 개설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미국 현대무용이 발전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한국의 현대무용은 육완순의 마사그라함식 테크닉과 1970년대 수많은 현대무용단이

창단되면서 마사그라함 스타일에서의 탈피 와 한국적 토착화 작업이 꾸준히 일어나며 발전하였다. 70년대 이후에는 전위 무용이 소개됨과 동시에 기존의 스타일에서 모두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실험적인 안무가 특징적이다. 1980년대에는 공연법 개정과 젊은 안무가들에 의한 동작 자체에 중점을 둔 안무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표현 등 다양한 양식이 결합하여 총제적인 표현 경향을 보였다. 이후 88서울 올림픽, 88아시안게임 등을 통하여 외국현대무용단의 작품을 통해 한국의 안무가들은 한국적 색채가 강한 실험적 시도와 국제 무용교류의 확산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립현대무용단의 창단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인 교류가 매우 활발해 졌으며, 한국의 현대무용이 세계와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거의 현대무용은 전문적인 무용수 양성의 어려움과 결혼 등으로 인한 무용수의 커리어 포기 등 인적자원의 부족과 사회 환경에 의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현대무용은 작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 경제적인 부담감, 입시위주의 작품 활동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입시 때부터 시작된 획일화된 작품 활동으로 인해 현대무용의 본질이 위협을 받으며,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은 졸업 이후 무용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로 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한국 현대무용이 나아갈 방향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의 현대무용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현대무용공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현대무용 교육은 특성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의 개발로 학생들이 입시 때부터 이미 전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화된 교육과 융복합교육을 통해 더욱 세분화된 분야의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용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양성된다면, 이들의 협업을 통해 무용공연의 질도 제고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현대무용을 생활 속에서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문화가 발전되어야 하며, 무용의 치료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가 더욱 탐구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2. 제언

한국 현대무용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현재의 현대무용 지망생들이 입시 위주의 무용에서 탈피하여 현대무용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커리큘럼의 특성화에 대한 의견은, 정책결정자들이 현재 지방대학교 무용과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즉, 지방의 무용과들이 특성화를 통해 공생하고 학문적인 깊이를 제고하여 나간다면, 현재의 지방대학교 무용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 소개, 11월 20일 접속, <http://kncdc.kr/ko/about/intro>
- 김미숙(1996), 부산 무용사 연구: 1945년에서 1972년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학회지.
- 김복희(1994), 현대무용의 한국적 전개과정에 나타난 유형별 특성 분석, 경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용(2021), 국·공립 현대무용단의 공공성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애진(1988), 한국 현대무용의 주제에 대한 연구 : 1905~197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91), 한국 신 무용의 시적 위상에 대한 고찰 : 1905~197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원, 후기 현대춤의 미학과 동향, 현대미학사, 1992.
- 김호연(2020), 한국 근대 현대무용 형성에 관한 시고.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8(2), 57-75.
- 김희정(2015), 대학별 무용(학)과 교육과정 비교 -교육이념과 무용(학)과 학제에 따른 무용교육과정 방향성 탐색-,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주원(1985), 한국 현대무용 발전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라승희(2011), 대학 무용(학)과의 창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자(2013), 춤 인생 60년, 광주에 발레를 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박성혜(2020), 무용공연지원사업의 공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 관계연구창작산실 무용분야 지원 산업의 사례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79(3), 57-77.
- 박은정(2009), 한국사회 변동과 현대무용의 전개 양상, 한국체육철학회지.
- 박은정(2009), 현대무용의 한국적 전개과정에 나타난 유형별 특성 분석, 경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정, 민현주(2009). 한국사회 변동과 현대무용의 전개 양상. 한국체육철학회, 17(4), 445-464.
- 박현아(2001). 한국 현대무용 시대적 흐름에 관한 연구-국제 무용제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주은(1989). 한국 현대무용에 나타난 표현주의적 요소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맹(2014). 한국과 중국 대학교의 현대무용 교육과정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제승, 무용학개론, 신원문화사, 1992.
- 양정수(1998). 한국 현대무용의 예술적 성향과 발전 양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수, 한국현대무용사, 대한미디어, 1999.
- 왕예개(2014). 한국과 중국의 현대무용가의 작품에 고나한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주(2000). 한국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 성향연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완순, 서양무용인물사, 금광출판사, 1986.
- 윤현숙(2007). 대구지역 무용의 흐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현(1997). 한국 현대무용 단체의 시대별 흐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2016). 무용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4(5), 123-140.
- 이애덕(1991). 대학무용교육의 고찰 : 무용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리(2016). 대학 무용학과 교육과정 구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2014), 한국 현대무용의 유형별 특성과 시기별 흐름분석-서울 무용제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희(2020), 대학 무용학과를 들여다보다. 서울문화재단.
- 정명지(2011), 융복합 교육에서 대학 무용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해주(2006), 성인기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등학교 체육 수업 심층 분석, 단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주희(2008), 대학 무용학과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연구: 미국 대학 무용(학)과의 사례를 토대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희(1992), 한국에 있어 현대무용의 한국화 작업에 대한 고찰 : 소재, 주제, 미형식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진(2001), 한국 현대무용 교육의 발전 동향에 관한 연구 : 대학 동문 무용단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은미(2002), 전국 무용제 실태 및 활성화 방안-제1회~제9회까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코리아국제무용콩쿠르, 개요, 2021년 11월 20일 접속, <http://kicdc.koreadanceassociation.org/about>.
- 하나경(2017). 경력단절 여성 직업무용수들의 비자발적 은퇴 후 정체성 변화과정 탐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단(1994). 한국과 중국의 현대무용 발전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상명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희정, 안병욱(2020), 실용무용 전공생의 학사과정 인식에 대한 탐색 연구. 우리 춤과 과학기술, 17(2), 73-93.
-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Winston.

부록 < 질문지 >

1. 현대무용에 대한 인식을 어떠했는가

1)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2000년대 이전 현대무용의 인식이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2000년대 이후 현대무용의 인식이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앞으로의 현대무용이 어떻게 인식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현대무용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2000년대 이전 현대무용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2000년대 이후 현대무용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한국 현대무용이 나아가야할 방향

1) 앞으로의 한국 현대무용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